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본색원한다

- 관세청,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특조단 운영,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 美, 반기별 우회수출 확인 기업 공개 및 40% 관세 부과 등 제재방침 발표
- 올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공조로 3,569억원 상당의 우회수출 행위 차단

(최근사례 : 美고관세 회피 노린 중국·베트남산 금 가공제품 2,839억원 적발)

-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관세청에 특조단 본부 설치 및 전국 본부세관에 10개 전담 수사팀 운영(2025.4월)

-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통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이 확대되면, 우리 수출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2025.8.7. 발효)을 발표하면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 관세청은 이러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 회피, 국산 프리미엄 차익 등을 노리는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관세청은 과거 5년간 총 137건, 7,949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최근의 우회수출 행위는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이외에 미국의 ①고관세율, ②수입규제, ③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를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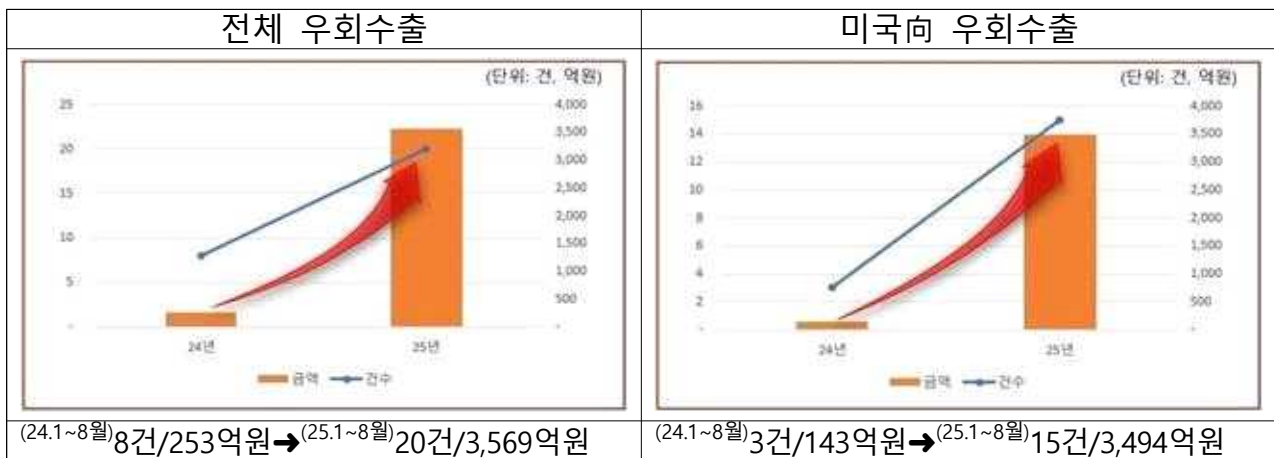
- 올해 1~8월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수출은 3,569억원 규모로 전년도 전체실적을 크게 초과하였으며, 전년 같은 기간(1~8월)과 비교할 때 건수, 금액 각각 150%, 1,313% 증가한 수치이다.

《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통계 》

(단위 : 건, 억원)

구 분	'21		'22		'23		'24		'25. 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15	436	43	2,408	49	1,188	10	348	20	3,569
미국	3	67	10	831	6	37	4	217	15	3,494
비율	20	15	23	35	12	3	40	62	75	98

《 2024년 및 2025년 같은기간(1~8월) 대비 적발통계 》



- 적발된 우회수출건의 일부는 세관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신고하여 불법 우회수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 또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후에,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택갈이를 이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후 미국 등으로 불법 수출한 사례도 적발하였다.

□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우회수출 차단을 전담하는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여 국경단계에서 우리나라를 악용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근 수사 결과 확인된 대표적인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고관세율 회피) 미국이 중국·베트남·인니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금제품(2,839억원)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조작하여 미국에 우회수출하여 국내 귀금속 가공산업 및 수출기업에 피해를 초래한 7개 업체 적발(2025.8월).

* 중국산: 5.5% ~ 158%, 한국: [0%(~2025.4.4까지 한미 FTA 0% 적용), 10%(2025.4.5~8.6)]

- 관세청은 특조단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미 수출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 귀금속 세공산업 및 수출 약화를 초래하는 금 가공제품의 중계무역*이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포착하고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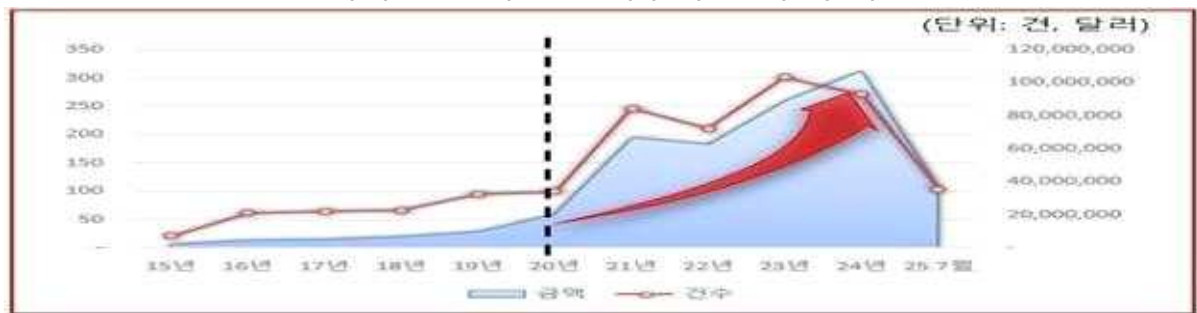
* '중계무역'이란 수출 목적으로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상태에서 수입통관 없이 해외로 다시 수출하는 것.

** 중계무역 수출 : (2019) 95건, 9백만달러 → (2024) 271건, 107백만달러(금액 10배이상 증가).

《 미국向 금제품 중계무역 통계 》 (단위 : 건, 백만달러)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7월
건수	21	62	64	66	95	99	246	210	301	271	103
금액	2	4	5	6	9	20	67	63	89	107	37

《 미국向 금제품 중계무역 증가 추이 》



- 수출실적이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금 가공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7개 업체를 혐의업체로 선정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미국에서 수입시 원산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수사를 진행하였다.
- 수사결과, 혐의업체들은 수출시에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 우회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해당 업체 7곳은 총 2,839억원의 금 가공제품(일부 은 제품 포함)을 미국으로 불법 우회수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대외무역법(국산가장 수출), 자유무역협정(FTA)특례법(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우회수출한 금제품 등 주얼리 사진 >

-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제품을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한국 세관에는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정상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조작하여 수출함
- 수사결과, 피의업체들은 미국의 고관세율(중국산 최대 158%)을 회피하기 위해 저관세율('25.4월까지 한미 FTA 0%)을 적용받는 국산 제품으로 둔갑하여 우회 수출한 것으로 밝혀짐
- 금 가공제품의 우회수출로 인해 국내 금 세공산업(익산 귀금속단지 등) 및 귀금속 수출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귀금속 가공제품의 불법 우회수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

【참 고】 수출신고내역과 허위발급된 원산지증명서

1. 미국으로 반송하기 위해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한 반송신고필증(중국산으로 표기)

반송신고필증(갑지)					
		※처리기간 : 즉시			
① 신고자 신한은행(주) 서울지점	② 신고번호 101001-24-0000000000	③ 세관과 수출과	④ 신고일자 2024. 08. 01	⑤ 신고구분 M 반송중계신고	⑥ CAS구분 P
⑦ 수출대행자 (중계수출업자) (중간고유번호) 101001-24-0000000000 수출화주 (중계수출업자) (중간고유번호) 101001-24-0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5길 10, 11층 (주요사업자) (대표자) 김철민 (사업자등록번호) 101001-24-0000000000			⑧ 거래구분 79 중계무역	⑨ 종류 A 일반수출	⑩ 결제방법 IT 단순송금방식
수출차구분 C			⑪ 목적국 US USA	⑫ 적재항 KN 서울/인천	⑬ 선박회사 (항공사)
			⑭ 산책명(중계명)	⑮ 물량예정일자	⑯ 적재예정보세구역
			⑰ 운송형태 40 ETC	⑱ 검사희망일 2024. 08. 01	
			⑲ 물품소재지 22300 인천시 중구 중앙로100-1 1-40 제1물류서비스센터		
① 제 조 차 미상 (중간고유번호) 제조미상-9-99-9-00-0 제 조 장 소 06178 산업단지부호 999			② LC번호		③ 물품상태 X
			④ 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N		⑤ 반송 사유 40
④ 구 매 자 (구매자부호) 101001-24-0000000000			⑥ 한국신청인 ⑦ 수출대행자/수출화주, ⑧ 제 조 자 자동간이정액환급 NO		
● 품명 (원번호/종란수 : 001/003)					
⑧ 품 명 GOLD NEW ELERY			⑨ 상표명		
⑩ 거래용명 14K GOLD NEW ELERY					
⑪ 모델규격		⑫ 성분	⑬ 수량 (단위)	⑭ 단가(\$)	⑮ 금액(\$)
1 라 옥지 계수					
원산지 : 중국					
⑯ 세관부호 711319-2000	⑰ 운송장				
⑱ 송품장부호	⑲ 수입신고번호	⑳ 원산지 CHINA	㉑ 모정것수(종류)		
㉒ 수출요강확인 (발급서류명)					
㉓ 총중량	㉔ 총포장것수	㉕ 총신고가격 (\$0 B)			
㉖ 운임 (\$)	㉗ 보험료 (\$)	㉘ 결제금액			
㉙ 수입화물 관리번호			A	㉚ 컨테이너번호	N
※신고연기재판			※세관가재판 2024. 08. 01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여 대해 세관검사비용을 지원 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합니다. (en-pass-custom-sgo.kr)		
㉛ 운송신고원			인천공항 세관장인 민원사무전용		
㉜ 기간	부터	까지	㉝ 적재의무기한	㉞ 담당자	㉟ 신고수리일자

발행번호 411001-24-0000000000

Page : 1/22

2. 피의업체가 미국 세관에 제출한 허위 원산지증명서(한국산으로 거짓표기)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수출자)	Name (성명)			2. Shipment Period (원산지표시물류기간)	
	Address(주소)			YYYY MM DD	YYYY MM DD
	Telephone (전화)			(년)	(월)
	Fax (팩스)			(년)	(월)
	E-mail (전자우편)			From: 2004/09/27 To: 2024/09/28	(주요)
3. Producer (생산자)	Name (성명)			4. Importer (수입자)	
	Address(주소)			Name (성명)	
	Telephone (전화)			Address(주소)	
	Fax (팩스)			Telephone (전화)	
	E-mail (전자우편)			Fax (팩스)	
5. 원산지표시물류대상물품내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 주석)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표기사항)		
1			7113.19	POR	REPUBLIC OF KOREA
2			7113.19		
3			7113.19		
4			7113.19		
5			7113.19	POR	REPUBLIC OF KOREA
6			7113.19	POR	REPUBLIC OF KOREA
7			7113.19	POR	REPUBLIC OF KOREA
8			7113.19	POR	REPUBLIC OF KOREA
6. Observations (특이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i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앞의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어떠한 사항에 대한 허위표기도 없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여의하는 본인에게 유감의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e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보유자에게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시 이를 모두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이 증명서를 받은 사람에게들에게서 서신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et forth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s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제출 물품은 대한민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요건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 __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허용된 서명)			Company: The Star Jewelry (회사명)		
Name: Moon DAIL (성명)			Title: CEO (직책)		
YYYY MM DD (년) (월)			Telephone (전화번호)		
2024 / 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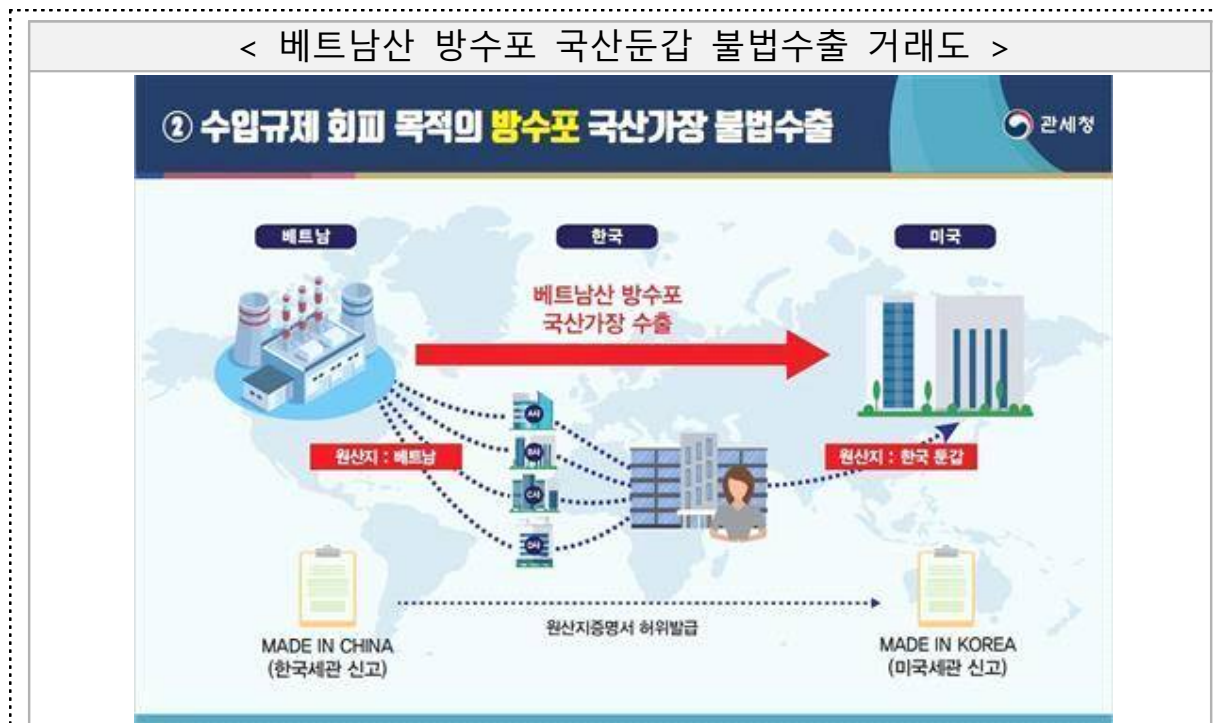
원산지 : 한국

REPUBLIC OF KOREA

- ② (수입규제 회피)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51만개, 137억원)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하여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업체 적발(2025.7월).

* 무역협정법(TAA, Trade Agreements Act) : 미 연방정부는 특정 무역협정국가(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 및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 등에서 제조된 제품 구매를 의무화.

- 피의 업체는 국내 4개 업체를 이용하여 베트남산 방수포를 수입한 후, 제품에서 베트남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택갈이를 통해 재포장하여 한국산으로 둔갑하였고, 수입업체(4개)를 제조자인 것처럼 속여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후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③ -1 (덤핑방지·상계관세 회피)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백*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산 종이백(10만 세트, 42억원)을 수입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업체 적발(2025.7월).

* 2023.11월부터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 쇼핑백에 덤핑방지관세 최고 146.32% 및 상계관세 최고 144.03% 부과, 2024.7월부터 최고세율 172.36%로 변경 부과.

- 피의업체는 중국산 종이백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포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스티커를 부착하여 한국산으로 우리나라 세관에 허위신고하고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산 종이백 국산둔갑 불법수출 거래도 >



< 중국산 종이백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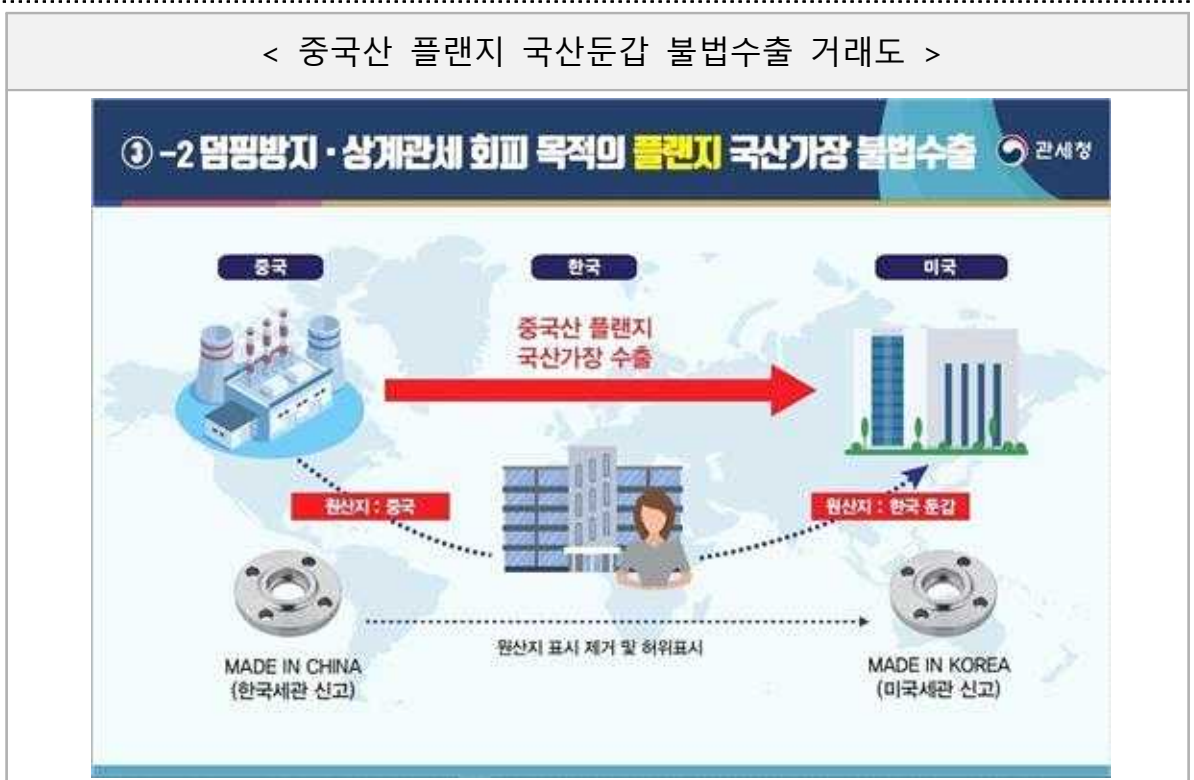


③-2 (덤핑방지·상계관세 회피) 중국산 철강류 플랜지(6만개, 43억원)에 대한 미국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플랜지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하고 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에 우회수출한 업체 적발(2025.9월).

* 2018.8월부터 미국에서 중국산 플랜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257.11% 부과.

- 이들은 중국산 플랜지 현품에 표시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제거하고 다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각인을 한 후,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해 우리나라 세관에 허위신고하고 미국으로 우회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산 플랜지 국산둔갑 불법수출 거래도 >



< 중국산 플랜지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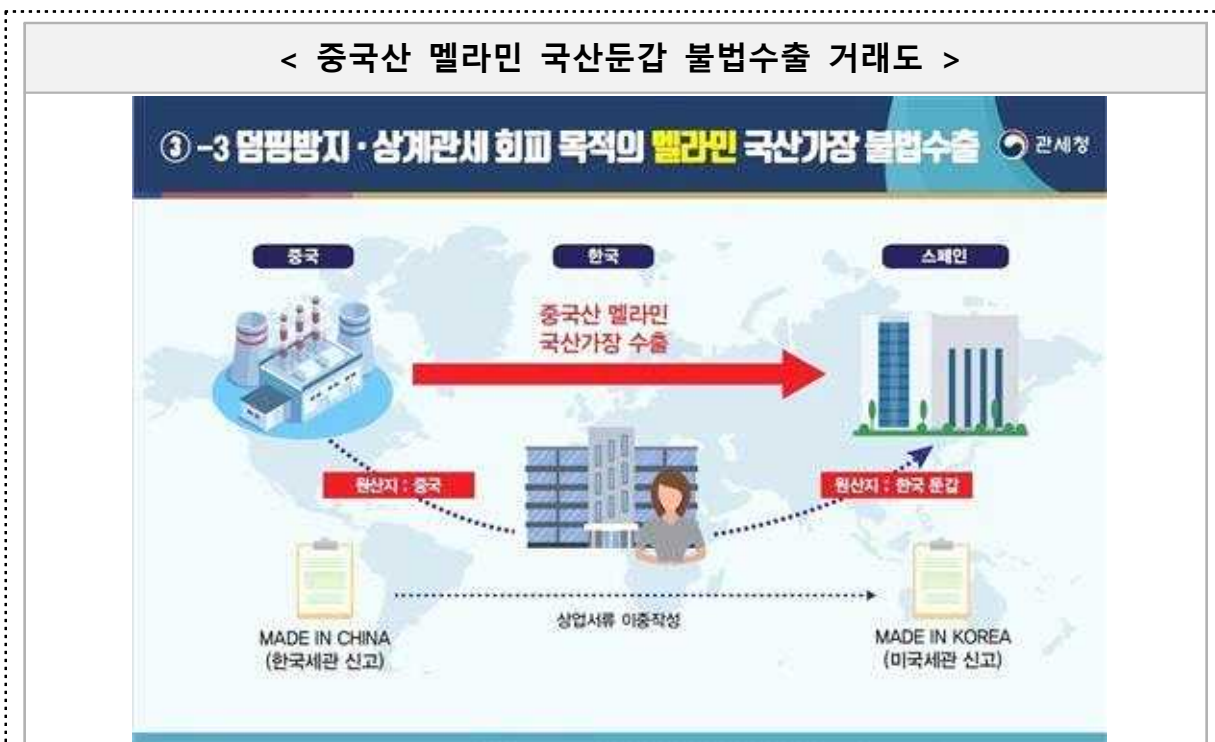


③-3 (덤핑방지·상계관세 회피) 중국산 멜라민*(3,580톤, 37억원)에 부과하는 유럽(EU)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스페인의 수입업자와 공모하여 중국에서 멜라민을 수입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조작하고 국산으로 둔갑한 후 스페인으로 불법 수출한 업체 적발(2025.6월).

* 유기 화합물로 플라스틱, 접착제 등 다양한 산업용 소재에 사용.

** 2017.6월부터 유럽(EU)은 중국산 멜라민에 덤핑방지관세 부과(톤당 415유로).

- 피의업체는 스페인 수입업자가 지정해 준 중국 제조사로부터 중국산 멜라민을 수입한 후, 운송과정에서 세관의 컨테이너번호 추적을 피하고 국내에서 제조 및 수출하는 제품으로 위장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품을 실은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스페인으로 우회수출하였다.



□ 관세청은 앞으로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우회수출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정보·단속 기관인 국정원·산업부·외교부 및 미국의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 수출입 신고자료 및 화물정보를 기반으로 우회수출 위험도를 분석하여 우범기업을 선별.

○ 특히, 최근 우회수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①국내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 후 외국으로 반송수출하는 방법, ②국내로 수입통관한 후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우회 수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감시 및 단속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최근 미국 정부에서도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한 만큼, 우회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외국산 제품들이 우리나라를 우회수출의 통로로 악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우회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우회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회수출이 의심되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이 미 관세정책 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국산둔갑 우회수출 제보 : 관세청 밀수신고센터*(포상금 최대 4천 5백만원).

* 전화 신고(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 모바일 신고(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

별첨 : 1. 적발사례 참고자료, 2. 사진 및 동영상(적발사례 ①).

※ 보도자료에 공개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담당 부서	관 세 청 조사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광우	042-481-7910
		담당자	사무관	전두한	042-481-7818